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ooahn@hanafn.com
삼프로 연구원 김민근 minkeunkim@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Issue Breaker

나스닥 급락, 또 그때처럼 느껴진다.

(결론적으로) 8개월 전 매수 기회가 재현 중이다. 간밤 한국(NXT)과 미국 주식시장 조정의 근간에는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넘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결심'은 감정보단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간밤 금융시장은 감정(투심)이 크게 작용했지만 실리적인 경제 의존도를 감안하면, 이성적 판단이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식 무역전쟁이 불러온 패러다임 변화는 궁극적으로 80년 동맹인 나토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끄집어 내야 한다. 유럽은 수년간 이어진 전쟁 이후, 재건이라는 생존의 과제가 남아 있다. 나토는 유럽과 미국 모두에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채널이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면, 우리는 2025년 4월을 기억해야 한다. AI 혁명은 90년 중반 IT 혁명을 뛰어넘을 생산성 제고를 시사하고 있다. 병목(공급제약)과 부족(초과수요)으로 메모리/전력/원자재/조선/방산 등 주요 산업들에 기회가 열렸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영업이익률 상승을 동반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은 풍부하고 한국 정부의 친시장정책은 유효하다. 2025년 4월(2일)의 충격은 미국 증시에는 이틀에 걸쳐 약 12%, 한국 증시에는 5.5%의 충격을 줬다. 하지만 지나보면 그때가 기회였다. 밀사, 밀리면 산다.

한국 넥스트레이드(NXT)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하락 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4.6% 하락한 142,500원, SK하이닉스는 -4.5% 하락한 730,000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 업종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일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매력도 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다. 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자동차, 조선 업종도 약세 마감했다. 현대차(-2.4%), 현대오토에버(-7.1%), HD현대중공업(-3.9%), HD한국조선해양(-2.4%), 삼성중공업(-5.7%) 등이 하락했다.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1.76%, 나스닥은 -2.39%, S&P 500은 -2.06%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은 2025년 10월 10일(-3.56%)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애플(-3.4%)과 엔비디아(-4.4%)는 10월 이후 3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아마존(-3.4%)과 메타(-2.5%)는 2달 만에, 테슬라는(-4.2%) 12월 17일 이후 한 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이 컸다. S&P500 전 섹터 약세 속 필수소비재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VIX 급등(+10.3%)과 미국 CDS 5년물의 스프레드 확대(+3.4%), 비트코인(-3.7%) 하락 등 위험자산에서 금(+3.7%) 등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

도표 1.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정규장, 애프터마켓 종가 비교

종목	시가총액 (조 원)	정규장 종가	정규장 등락률(%)	애프터마켓 종가	애프터마켓 등락률(%)
삼성전자	946.9	145,200	-2.75	142,500	-4.55
SK하이닉스	540.9	743,000	-2.75	730,000	-4.45
현대차	115.5	479,000	-0.21	468,500	-2.4
LG에너지솔루션	94.3	403,000	1.13	392,500	-1.51
삼성바이오로직스	88.9	1,920,000	-0.05	1,900,000	-1.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7.5	1,309,000	-1.58	1,294,000	-2.71
HD현대중공업	67.3	641,000	-1.08	623,000	-3.86
기아	64.0	163,900	-3.3	161,000	-5.01
두산에너빌리티	61.0	95,300	-0.1	91,700	-3.88
SK스퀘어	56.4	427,000	-1.95	421,000	-3.33
KB금융	50.8	133,100	2.78	133,200	2.86
삼성물산	50.6	296,000	2.42	292,000	1.04
셀트리온	47.8	207,000	0.24	202,500	-1.94
한화오션	45.1	147,100	-1.14	142,700	-4.1
현대모비스	40.9	451,000	-1.42	440,500	-3.72
신한지주	39.8	81,900	2.76	81,600	2.38
NAVER	38.3	244,000	2.52	239,500	0.63
한국전력	42.0	65,400	16.16	64,200	14.03
삼성생명	35.0	175,200	4.91	173,000	3.59
HD현대일렉트릭	33.0	915,000	-0.33	890,000	-3.05

자료: 넥스트레이드,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작년 4월 관세 전쟁 시기와 비교한 미국과 한국의 매크로 환경

구분	2025년 4월		2026년 1월	
	미국	한국	미국	한국
기준금리(%)	4.25~4.50	2.75	3.50~3.75	2.50
국고채 단기물 금리 (%)	3.86	2.41	3.59	3.19
국고채 장기물 금리 (%)	4.13	2.65	4.29	3.65
환율(p, 원)	103.8	1,467.8	98.6	1,478.1
소비자물가 상승률 (%)	2.4	2.1	2.7	2.3
경제성장률(%)	-0.6	1.1	4.3	1.8

주) 미국 국고채 단기물 금리는 2년, 한국 국고채 단기물 금리는 3년물 사용. 미국 환율은 달러인덱스, 한국 환율은 달러-원 환율 3시 30분 종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 YoY 최신 발표치, 미국 경제성장률은 SAAR, 한국 경제성장률은 % YoY 최신 발표치

자료: Bloomberg,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하나증권